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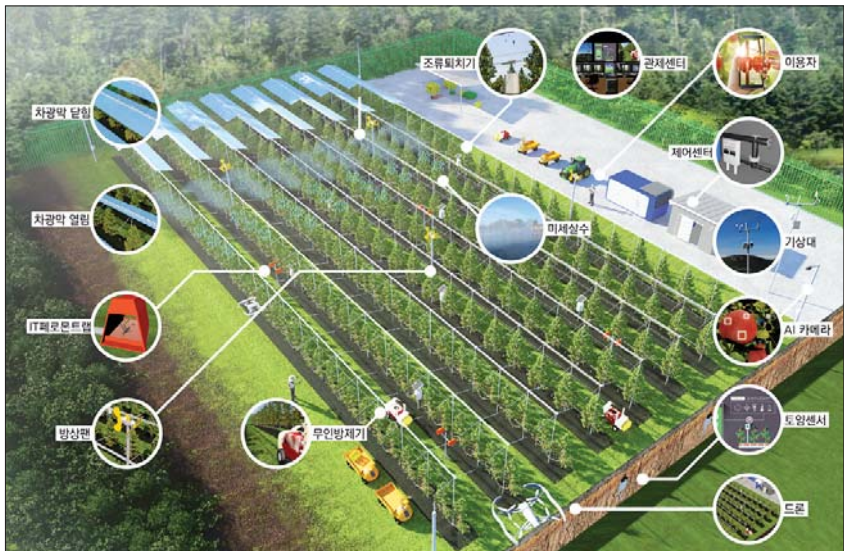
경북도, 전국 최초 ‘사과 스마트팜’ 모델 공개

시설원에서 노지품목 영역 확장
최첨단 ICT 과학기술 설치·활용
성과분석 결과, 비용↓생산성↑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유관기관, 지역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ha 규모로 시범 조성된 ‘전국최초 사과 스마트 팜’ 모델을 9일 공개했다.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 농업 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북상, 지속적 시장개방 압박,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사과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 농업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에 품목에 편중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보인 사과 스마트 팜은 실내온실을 벗어나 농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노지품목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과 스마트팜 조감도.

이날 공개된 사과 스마트 팜은 총 61ha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별도 조성된 표준형 모델이다.

1ha의 면적에 최첨단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점적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에어포그, CCTV 등 생육관리 시스템과 미세살수시설, 자동 방조망, 열상 방상팬 등 재해방지시설, 병충해 예찰 장비인 IT페로몬 트랩, AI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시설과 장비가 설치돼 있다.

데이터 센터와 과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생육정보, 기상데이터, 병해

충자료가 AI를 기반으로 수집·분석·가공되고, 다시 농가로 제공되는 환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과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가동시킬 수 있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농약살포, 병해충 예찰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사과 스마트 팜 표준형 모델 등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약 25%와 10% 증가하고, 노동시간(관수·관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4와 50% 정도 감

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기대대로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성과가 검증된 만큼 사과 스마트 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농민사관학교와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통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ICT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성군 사곡면 일원에 82ha 규모로 조성될 마늘 스마트단지 등 노지스마트 농업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61.5ha에 이르는 스마트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 실증단지 설치 등 전국에서 유일한 노지분야(사과) 스마트 농업 거점 모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으로는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며 농업대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백운산 ‘숲속 감동책방’ 개장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북카페형편의 공간인 ‘숲속 감동책방’을 오는 12일부터 개장한다.

‘숲속 감동책방’은 과거 야외 물놀이장 운영 당시 매점으로 활용되다가 이후 수년간 방치돼 산림 미관을 저해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정비해 건립됐다.

‘숲속 감동책방’은 면적 20㎡ 규모로 창호 비율을 높여 채광과 주변 경관 조망에 유리한 구조로, 실내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중고 도서 7백 권을 포함한 총 도서 1천 권이 비치됐다. 실외에는 잔디정원과 원목 테이블을 배치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대전시

관광도 하는 이색 ‘힐링캠프’

대전시는 6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동구상소동 오토캠핑장에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가족과 캠핑도 하는 ‘2023 풀캠대전 힐링캠프’를 연다.

캠핑장에 가기 전 대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주어진 미션을 하는 스탬프투어, 지역 전통시장에서 캠핑장 먹거리를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미션 등이 진행된다.

캠핑장에서는 먹거리로 요리해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캠핑 요리대회와 대전관광 퀴즈쇼 등도 펼쳐진다. 가족 장기자랑, 힐링음악회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부산시

‘광안리어방축제’ 개최

부산 수영구는 부산 유일의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광안리어방축제’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안리 해변과 수영사적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구는 먼저 축제의 모든 먹거리 부스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만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옛 좌수영여방에서 어민들이 햇불을 밝히고 야간 고기잡이를 했던 모습을 재현한 ‘진두어화’에서 햇불(휘발유 사용) 대신 LED 전구로 전면 교체해 어선 퍼포먼스를 펼치며, 환경 유튜브와 광안리 비치코밍(해변환경정화) 활동도 시행하는 등 친환경 축제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경남도, 남해 연안 6곳 방사능 검사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日 오염수 방류에 유통 수산물 자체 조사 2배 확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오염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남해 연안의 유통 수산물과 해수, 갯벌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2022년에는 남해 연안 5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의 해수와 갯벌을 매달 조사했고, 올해는 고성군을 추가해 6개 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또 남해 연안의 유통 수산물 자체 조사를

2022년 기준 2배(100건)로 확대 검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감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통 수산물 89건과 남해 연안 6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에서 채취한 해수와 갯벌 48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산물에서는 방사성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의 인공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과거 해의 핵 실험 영향으로 추정되는 세슘(137Cs)이 해수(불검출~0.00210 Bq/L)와 갯벌(불검출~1.76 Bq/kg-dry)에서 검출됐다. 다만 이는 평상 범

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2021년) 이내로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또 고리원전 영향과 도내 방사능 분포 경향 파악을 위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먹는 물(정수와 원수), 대기(공기와 빗물), 토양 등 162건을 검사한 결과, 토양(불검출~21.4 Bq/kg-dry)에서만 세슘(137Cs)이 검출됐지만 평상 범위(도내 등산로, 2015년~2017년) 이내였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고흥시

거금대교, 관광 명소 된다

고흥군은 금산면에 거금대교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1층)와 차도(2층)인 복합교량으로 지난 2011년 12월에 개통된 거금대교가 트릭아트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다도해의 비경을 복층다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6월에 착수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시장개척단, 1000만 달러 수출계약

태국·베트남 파견 15개社 성과

전라남도는 세계경기 침체 위기 극복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한 시장개척단이 총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도가 파견한 전남 수출유망 15개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재 구매자 발굴과 매칭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거래 성립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5개 기업은

76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5건 630만 달러 수출계약과 15건 395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고 658만 달러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2일 태국 방콕 수출상담회에서 (주)해농이 김, 미역 200만 달러 상당 수출계약을 했다. 또 해농이 추가로 50만 달러, (주)에스에프시가 비이온계면활성제 10만 달러, (주)에이치비가 화물운반차 3만 달러 등 총 6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4일 베트남 하노이 수출상담회에서 선 완도만이 2건 220만 달러 상당의 전복과 해조류, 완도물산이 200만 달러 조미김, (주)푸드파파가 10만 달러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수출상담. /전남도

상당의 떡류 수출계약을 했다.

이밖에도 완도고금바다(주)가 매생이 전복죽 2만 달러, 완도물산이 조미김 90만 달러, 푸드파파가 떡류 20만 달러, (유)호인이 네일 제품 10만 달러,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30만 달러, 맑고맑고따뜻한 협동조합이 유자주스 10만 달러 등 총 332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고성군

청년들 위한 페스티벌 열어

고성군이 오는 13일 고성청년센터 일원에서 고성군 청년들을 위한 첫 페스티벌 ‘고성청년! 문화와 예술에 놀다’를 개최한다.

군은 청년축제인 만큼 색다른 아이টে으로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돗자리관람석, 감성 부스로 가득 찬 부스거리 등 청년 감성 축제로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더했다.

감성 부스에는 고성군의 청년동아리, 청년 농부 등이 직접 참여해 먹거리와 고성 청년 농부가 키운 고성특산물, 청년 예술가가 직접 만든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청년 창업가의 각종 홍보부스가 열린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